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아파트 높이 급상승



공간 균형 무너진 광주

<2> 30~48층 성벽 200개 넘어

2010년 이후 광주의 초고층화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25층, 2015년 전후 30층, 2016년 이후 40층 이상으로 아파트 높이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 외곽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임야, 전답 등에 들어선 10~25층 높이의 아파트, 구도심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의한 20~35층 높이의 아파트, 도심 상업지역에는 최고 40층 후부대의 초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섰거나 신축 예정이다.

올 상반기 광주시의회가 조사한 결과 광주에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모두 26곳 170개동에 이르고 있다. 현재 완공되거나 공사중, 또는 건축허가가 나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가 아

2000년대 25층 이어 2016년 48층 초고층화 추세 상업지역 상가·점포 공급 위해 40층 주상복합 지어 도시·건축위 공공성 강화 위해 위원 선정 등 개선해야

난 금호생명빌딩(30층) 등 업무시설은 4동에 불과하다. 나머지 22곳 166동이 아파트(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포함)다.

올 들어 지난 11월 23일까지 건축위원회는 12차례 회의를 열어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1건이 원안결, 17건이 조건부 의결, 2건이 재검토 의결, 1건이 부결됐다.

21개 안건 가운데 공동주택, 즉 아파트 관련 안건이 15건에 이르고 있으며, 30층 이상 아파트가 5건이다. 지난 2015년 서구 광천동에 48층짜리 주상복합을 조건부 의결한데 이어 2년만에 북구 누문구역 46층 13동, 북구 문흥동 45층 2동 등이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축위원회가 내건 조건은 대부분 건축계획이나 구조, 색채·경관·디자인, 교통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일

부 아파트의 2~3개 층을 줄이기도 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40층 이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주거+오피스텔, 주거+근린상업시설 등)으로 짓기 때문이다. 상가, 점포 등을 공급하기 위한 상업지역에 주거지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중앙도시계획위원)는 “도시계획조례로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넣을 경우 용적률을 낮추는 등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에 관련 업종 종사자의 진출이 지나치게 늘면서 안전 심의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광주도시공공성 연구모임과 광주환경운동연합

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 가운데 관련 업종 종사자는 건축·디자인 분야 40명, 엔지니어링 분야 29명, 기타 관련 업종 3명, 건설사 5명 등 77명에 달하고 있다. 비율로 보면 34.5%, 대학 및 연구소(36.9%)에 이어 두 번째다.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 관련 업계 관계자, 기술직 공무원 등이 주축이 되는 도시·건축위원회가 도면이나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개별 대상지를 심의하는 방식의 개선이나 위원회 위원들의 엄격한 선정, 위원회 위원 발인과 안전 심의 내용 전체 공개 등도 요구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은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가 공공성보다 사업성을 더 중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위원회의 위원 선정, 위원들의 발언 내용, 안전 건의 처리 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장시호 2년6월·김종 3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6일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소금 7억1000여만원의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유K가 광역 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장씨의 경우 지난 6월 초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이들과 공모해 함께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의 심리가 남아 여타 사건과 병합해 함께 결심과 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투자·1순위

- 여수 거문도 섬 모든 부동산
- 2년안에 투자비율 100% 수익

상담문의 H.010-3605-5000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下... 광주·전남 행정기관 청렴도 '바닥권'

광주시 11위·시교육청 17위 '꼴찌'
전남도 13위·광주도시철도공사 1위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 교육청 등 광주·전남 주요 행정기관의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만이 지난해에 비해 나아졌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하거나 제자리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청렴도가 가장 낮았지만, 7년간 재임한 현 감사관의 연임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1위의 영예를 이어갔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광주시는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63점을 기록,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를 차지했다. 등급으로는 3등급에 타격이었다. 전남도는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5점을 기록,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를



나타냈다. 전국 꼴찌였던 지난해보다 4단계, 0.85점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진전을 보였다.

광주시의 경우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을 대상으로 평가한 외부청렴도가 지난해 8.9위에서 올해 9위로 하락하고, 소속 공무원이 내부 업무와 조직 문화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4등급 13위로 하위권에

머문 것이 발목을 잡았다.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 주민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가 14위에서 10위로 오르지 못했고, 순위 상승을 이끌기엔 역부족이었다.

자치구 평가에서는 동구가 7.64점으로,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65위, 등급은 최하위 5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4개 구는 3등급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올해 지난 7년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소통 강화'와 '공감 확산'에 중점을 두면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 나주, 광양, 영광, 담양, 신안, 강진, 함평 등이 2등급으로 선전했으며, 고흥과 장흥은 나란히 5등급에 머물렀다.

공기업 중에서는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는 8.59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 30대 지방공기업 중 1위를 차지한 반면 광주시 도시공사는 24위, 4등급에 그쳤다.

광주시교육청은 7.24점으로 지난해 16위에서 최하위인 17위로 떨어졌다. 공사 관리·감독, 운동부 운영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 7.63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유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조국 수석 “조두순 재심 청구 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전자발찌 연장 등 철저 관리”

청와대는 6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해당 청원은 종료일인 전날까지 3개월 동

안 61만5천여 명이 공감을 표해 최다 참여로 기록됐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

야 한다”며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피해자가 이번에도 수능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한마음 공인중개사

- ▶ 신가동 4층상가건물 대지 240㎡ 보5천만원 월420만원포함, 매매가 9억5천만원
- ▶ 송정동 3층상가건물 대지 280㎡ 최고요지 보1억4천만원, 월710만원 포함 매매가 20억원
- ▶ 남구 봉선동 1층상가 120㎡ 인테리어 잘되어 있음, 최고요지, 아파트정문앞 상가 밀집지역 보5천만원 월340만원, 권리금 일천만원(조정가)
- ▶ 금곡동 총장사근처 고급 전원주택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1층 126㎡(주택정원 잔디밭, 발, 주차장소재) 사정상급매, 매매가 7억원(조정가)
-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3000㎡ 건물4층 3동, 객실 37개, 월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가), 용지28억원포함, 매매가 37억원
- ▶ 담양 월산면 모텔(무인텔, 요양병원 최적화) 대지4200㎡, 계획관리지역, 건물2동있음(현재 담양군 모텔허가 안나옴) 철거후 무인텔허가 가능 매매가 10억원(조건부 협상가)
- ▶ 광산구 송치동 180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억원
- ▶ 제주시 과수원 1840㎡(도로있음),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4억4천만원
- ▶ 신안군 비금도 염전 (태양광), 25,000㎡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600만원
- ▶ 장성군 남면 행정리 44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9300만원
- ▶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백양사와 월산면 사이)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계림오거리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사혈 건강가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고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수식~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야!!!

삼성계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소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NAVER 백세생활건강 KHS

010-3598-7080